

제설제 뿌려도 속수무책...광주 출근길 대란 우려

최강 한파 르포 - 끔찍 얼어붙은 도심

눈길 교통·낙상사고 속출...해남선 9중 추돌도 제설작업 고심 속 동파·차 배터리 방전 잇따라

기록적인 한파를 동반한 폭설로 광주 도심이 끔찍 얼어붙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제설작업에 나섰지만 금남로 등 주요 도로조차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을 정도로 속수무책이어서 25일 출근길 극심한 교통불편이 예상된다.

염화칼슘을 사용한 제설작업이 맹추위 속 폭설 앞에서 효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 도로에선 교통사고가, 인도에선 낙상사고가 속출했다. 주택과 상가에선 수도관이 얼어붙고, 차량 배터리 방전 등 긴급출동 요청도 쏟아지고 있다.

◇더딘 제설작업...도심 주행해보니= 24일 오전 8시에 광주시 광산구 수완지구 주요 도로는 어림잡아 5cm 이상의 눈이 쌓여있었다. 휴일인 탓에 도로를 오가는 차량은 버스와 택시가 주를 이뤘지만, 제설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두 거북이 걸음이었다. 흑석사거리를 지나 광주주여대를 향해 올라가는 왕복 8차선의 가벼운 경사길조차 쌓인 눈 탓에 올라가지 못하고 헛바퀴를 도는 차량이 쉽게 눈에 띄었다. 도로사정이 워낙 나쁘다보니 수완지구에서 광산경찰서(운수동)까지 5km 가는 데 무려 30분이 걸렸다.

광주시는 이날 무등산 상장방향 도로만 차량 통행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도심 곳곳에서는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

하기 힘든 구간이 적지 않았다. 광산구 운수동 광산경찰서·보문고에서 광주여대 방향으로 가는 오르막길은 오전 내내 경찰이 우회통행을 유도했고, 서구청 앞 농성 지하차도의 경우 통행제한은 없었지만 경사구간을 올라가지 못하는 차량이 눈에 띄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지난 23일부터 149명의 인력과 제설차 39대를 동원해 염화칼슘 239t, 소금 846t을 뿌리는 등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맹추위 속에서 제설작업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23일 오후 3시부터 광주 시내 470개 노선 552km 구간을 제설차를 동원해 치우고 있지만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고 눈도 그치지 않다 보니 염화칼슘을 뿌려도 큰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수도관 열고 차량 배터리도 방전= 24일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관이 얼어붙는가 하면 차량배터리 방전 등 불편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광주시 소방본부에는 주택 수도관이 얼어붙었다는 신고 전화가 114건, 수도 계량기 파손사고 2건이 접수됐다. 전남에서는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55건 접수됐다.

차량 배터리 충전, 눈길 견인 서비스 등 보험사와 카센터에 접수되는 긴급출동



기록적 폭설이 내린 24일 오후 광주시 서구 화정 4거리 오르막길 한가운데에서 교통경찰들이 폭설에 빠진 차량을 밀어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요청도 쏟아졌다.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 카센터를 운영중인 이영수씨는 "오늘 하루만 보험사를 통해 40여건의 긴급출동 요청이 들어왔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접수 이후 도착까지 1~2시간은 족히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낙상사고도 잇따라= 도심이 끔찍 얼어붙으면서 사고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밤 9시20분께 광주시 남구 방림동 인근 도로에서 A(여·59)씨가 몰

던 승용차가 눈길에서 미끄러지면서 4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11건의 빙판길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전남에서도 이날 낮 12시에 눈길 9중 추돌사고가 일어났지만 인명피해는 가벼운 부상자 3명에 그쳤다.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속에서 교통사고는 잇따랐지만 차들이 대체로

서행하는 탓에 대형사고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낙상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오지동 빙판길에서 행인이 넘어져 다치는 등 지난 23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22건의 낙상사고가 발생해 19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에서는 전날부터 42건의 교통사고와 28건의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눈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북극 빙하 녹으면서 제트기류 약화 시베리아 찬 공기 한반도까지 남하

왜 이리 추운가 했더니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몰아친 한파의 원인은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우리나라까지 유입돼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초까지 이어진 '슈퍼 엘니뇨'(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 상승 현상) 기세가 갑작스레 약화한 것도 '최강 한파'의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이번 추위는 오호츠크해 북쪽 약 5km 상공에 '기압능'(기압이 가장 높은 곳을 연결한 선, 일명 기압마루)이 발달하면서 대기의 동서 흐름을 막고 남북 흐름을 강화시켜 시베리아의 차가운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극 주변의 제트 기류가 약해졌

기 때문이다. 제트 기류는 북극 주변을 빠르게 돌면서 한기를 막아두는 역할을 한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빙하가 녹아 북극 상층 온도가 따뜻해지면서 제트 기류가 약해졌다. 이로 인해 북극 한기가 한반도가 속한 중위도까지 내려온 것이다. 북극 한기의 유입과 함께 대기의 블로킹(차단)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추위는 더 심화됐다.

일본 동쪽부터 러시아 북동부지역의 캄차카반도까지 형성된 기압능이 한기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26일 오후부터 낮 기온이 점차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영하 10도에 바람 초속 5m면 영하 17도 초속 10m 불면 영하 20도까지 떨어져

온도와 체감온도 관계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도 춥게 느껴지지 않거나 반대로 기온은 그리 낮지 않는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춥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체감온도 때문이다. 기상청 등 관측소에서 잦은 기온과 우리 몸이 실제로 체감하는 온도가 다르다는 의미다.

체감온도는 기온과 바람(풍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24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광주의 기온은 영하 11.6도로 오전 8시(영하 11.3)보다 0.3도 더 낮았다. 하지만 체감온도는 반대로 오전 8시가 영하 16.8도로 오전 9시(영하 16.3)보다 0.5도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전 8시 풍속(2.8m/s), 즉 바람이 오전 9시(2.2m/s)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영하 1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풍속이

초속 1.3m이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유지한다. 하지만 풍속이 초속 5m로 빨라지면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고, 풍속이 초속 10m이면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감온도 계산법은 지난 2001년부터 캐나다와 미국 등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쓰이는 'JAG/TT' 모델이다. 기온과 풍속 값을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체감온도는 외부에 있는 사람이나 동물이 바람과 한기에 노출된 피부로부터 열을 빼앗길 때 느끼는 추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라며 "바람이 강해질수록 피부의 열 손실률은 높아지게 되며 결국 내부체온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

광주 모든 학교 오늘 하루 휴업

폭설과 한파에 광주의 모든 학교가 25일 하루 휴업한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에 대설경보가 내려져 25일 모든 학교의 등교(개학), 보충 수업, 방과후 수업 등이 중지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되는 학교는 방과 후 수업이나 자율학습을 하는 대부분 고교 1, 2학년이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25일 개학 예정이었던 운남초교는 개학을 연기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 흑산초교가 개학을 미뤘다. 흑산초교 외 25일 개학하는 신안의 도초초교·장산초교, 영광 군서초교·장산중학교, 강진고, 장성 삼계고 등은 등교 시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보성 용정중은 26일 예정된 개학을 27일로 연기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불만 열차' KTX

문짝 얼어붙어 출발 지연에

유리창 금 간재 종착역까지

용산발 목포행 KTX 열차가 문짝이 얼어붙는 바람에 출발이 지연되고 용산발 여수행 KTX의 경우 유리창이 금이 간 채 종착역까지 내달리면서 고객 불만을 샀다.

24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 서울 용산역에서 출발해 목포역으로 향할 예정이었던 KTX 열차의 운전석 문이 닫히지 않으면서 출발이 9분간 지연됐다. 호남선 시·종착역인 용산역에서 KTX를 운전하는 기장이 교대를 하려고 운전석 출입문을 잠시 열어둔 것이 화근이 됐다. 평소에는 문을 열어 뒤도 문제가 없지만, 영하 18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에 문이 얼어붙으면서 교대한 기장이 문을 닫으려고 해도 닫히지 않았던 것이다. 코레일은 온풍기를 동원해 얼어붙은 문짝을 녹였고 예정보다 9분 늦은 10시 46분께 열차가 출발했다.

앞서 지난 23일 밤 8시50분 용산역에서 출발한 KTX 열차는 유리창이 파손된 채 종착지인 여수까지 내달렸다. 승객들의 항의를 받은 코레일은 유리창 열 좌석에 앉은 승객을 다른 자리로 옮겨 앉게 하고 금이 간 유리창에 테이프를 붙이는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관계자는 "여수행 KTX의 경우 이중 강화유리창 가운데 1개가 금이 가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며, 원인은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탑승권 바꿔치기' 2500만원 배상



○...법원이 여객기 탑승권을 바꿔 타 결국 회항하게 만든 30대 승객 2명에게 항공사에 수천만원을 물어주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향후 결과가 주목.

○...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윤병각)는 아시아항공이 박모(30), 김모(30)씨를 상대로 6190만원을 물어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 등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는 것.

○...김씨는 애초 제주항공 탑승권을 받았지만 탑승권도, 지각 출근을 우려해 친구 박씨의 아시아나 탑승권을 갖고 지난해 3월 16일 오후 2시 15분(한국시간) 홍콩 책랍록 국제공항에서 승객 258명을 태운 인천행 아시아항공 OZ722편을 타고 이를 뒤늦게 확인한 항공사가 이륙 1시간여 만에 비행기를 홍콩으로 긴급 회항.

○...이들의 부정 탑승은 김씨가 짐을 바꿔 부치고 교환한 탑승권으로 올라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넘어가는 듯 했지만 박씨의 제주항공 탑승 과정에서 부정 탑승 여부가 드러나면서 발각.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2016년 1월 31일까지

H.010-3605-5000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조정가)

월산동, 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음,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용 6천5백만원포함)

보성, 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13만평 중 5분의 1지분(26,286평)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원 6천만원(조정가)

돈 되는,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 ▶용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